

2025년 '교과서 속 인물 이야기'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교과서 속 독립운동가 이야기를 연재합니다.

대한의 완전한 독립을 추구한 김구



남궁원

서울고등학교
수석교사

“네 소원이 무엇이나? 하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나?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나? 하는 셋째 번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 없다. 내 과거의 70평생을 이 소원을 위해 살아왔고, 현재에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을 달하려고 살 것이다. 독립이 없는 백성으로 70평생에 설움과 부끄러움과 애탐을 받은 나에게는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완전하게 자주독립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보다가 죽는 일이다.”¹⁾

1) 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423p.
전일옥, 「백범 김구의 평화론에 관한 고찰」, 『평화학연구』 제22권 1호(2021), 11p

위의 자료는 백범 김구의 자서전인 『백범일지』에 실린 글이다. 올해 2025년 을사년은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이다. 교과로서 독립운동사 수업을 하는 것은 가슴 아픈 역사를 다루는 일이기에 먹먹하고 아쉬움이 크지만, 동시에 매우 힘차고 자부심이 느껴지는 일이기도 하다. 그것은 매우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가담하여 자신의 육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독립운동에 매진하였다는 사실 때문이다. 매우 많은 사람들이 단체와 조직을 만들어 독립운동에 가담하여 그 기록과 사실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 때문이다. 물론 친일의 길을 걸었던 비겁한 인물들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나선 이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학생들과 더불어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기쁘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우리의 독립운동을 이끌어간 인물을 다시 더듬어 볼 때 누구를 먼저 다룰 것인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필자는 김구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그의 삶은 독립운동 자체라 아니할 수 없다. 위에 제시한 글을 보면 단박에 김구를 알 수 있으니 말이다. 그의 소원은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었다. 이에 김구의 삶을 살펴보고, 이어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서술된 김구의 내용을 찾아보고자 한다.

김구는 1876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다. 우리나라가 강제적으로 일본에 개항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해에 태어났으니 그의 삶의 곡절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처음 이름은 김창암이었는데, 동학에 입교하면서 김창수로 바꾸었고 1912년에는 김구로 개명하였다. 김구의 구자는 거북 구(龜)였던 것을, 후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 시절에 아홉 구(九)로 바꾸었다고 한다. 김구의 사람됨을 알게 된 가장 중요한 사례의 하나가 이른바 치하포 사건이다. 1896년 3월에 김구가 일본인 쓰치다 조스케(土田譲亮)를 살해한 사건으로, 김구는 “국모를 시해한 일본인을 살해하여 원수를 갚고자 한 것”이라고 『백범일지』에 기록하고 있다.²⁾ 김구는 인천감리소에 수감되어 2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가 탈옥했다고 한다.³⁾ 탈옥한 그는 머리를 깎고 마곡사에 숨어 지내다가 환속하여 고향인 해주로 돌아와 훈장도 하고, 농사일을 하다가 감리교를 종교로 삼았다. 1907년 신민회에 가

2) 이에 대하여 일본측 기록에는 쓰치다 조스케가 이즈하라 출신의 상인으로 계림장업단 상회에 소속되어 있었다고 한다.

3) 일설에는 고종이 전화로 사면령을 내려 인천감리소에서 사면받아 출소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다만 『백범일지』에 그리 기록되어 있다.

입하여 본격적인 항일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1910년 안악 사건⁴⁾에 연루되어 투옥되었다. 15년형을 받아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1914년 인천 감옥으로 이관되어 수감 생활을 하다가 1915년 가석방되었다. 이후 김구는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농촌 계몽 운동을 전개하였다고 한다. 황해도 안악 동산평(東山坪)에서 대지주 김용진 가문의 농감(農監) 겸 동산소학교(東山小學校) 교장으로 있으면서 애국 계몽 운동을 벌이는 등 백성을 깨우치는 활동을 하였다.⁵⁾

김구는 1918년 상하이에 조직된 신한청년당에 가담하였으며, 1919년 3·1 운동 직후에는 상하이로 망명하여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참여하였다. 안창호의 소개로 초대 경무국장을 지냈다.⁶⁾

그는 수하 경찰을 이끌고 일제 밀정을 처단하는 등 친일파와 밀정에 대한 처벌을 주도하였다.

한편,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초기에 주된 독립 방략으로 삼은 것은 외교론이었다.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본부를 둔 것, 파리위원부와 구미위원부를 설치해 외교 활동을 펼친 것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외교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강대국들은 우리의 독립에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제1차 세계 대전의 전후 처리를 위해 1919년 1월 개최된 파리 강화 회의는 강대국들의 이익을 우선하여 진행하였으며, 더구나 승전국의 식민지 독립은 보장되지 않았다. 미국 대통령 윌슨이 제창한 민족 자결주의는 패전국 독일의 식민지 등에게 보장된 것이지 승전국의 식민지엔 해당되지 않았다. 그러니 파리 강화 회의에 대표로 참석한 김규식 등이 요구한 우리의 독립 의지는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어 1921년 미국에서 개최된 워싱턴 회의⁷⁾에 이승만을 비롯한 구미위원부가 참석하여 우리의 독립 의지를 표출하려 하였지만 우리의 참석은 거부되었다.

이렇듯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연통제와 교통국이 일제가 발각되어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이어 무장 투쟁론과 외교론의 갈등

4) 신민회 회원인 안명근의 독립 자금 모금 활동을 일제는 데라우치 마사타케 총독 암살 모의 사건으로 날조하여 신민회 회원 105명을 기소 처리한 105인 사건을 일으켰다. 이를 안명근 사건, 혹은 안악 사건이라 한다.

5) 신명호, 「신명호의 상해임정 27년사」 6, 『월간중앙』(2022. 9.)

6) 김용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영원한 주석」 김구, 『월간 순국』(2024. 4.)

7) 해군 군비확장 경쟁을 제한하고 대평양 지역에서의 안전 보장 협정을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미국이 소집한 국제회의(1921~22). 이 회의의 결과 중국은 산둥반도의 권익을 일본으로부터 반환받았다.

이 심화되었고, 이승만이 국제 연맹에 위임통치 청원을 하자 신채호와 박용만 등이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새로운 노선 및 활동 모색을 위해 상하이에서 1923년 국민 대표 회의가 열렸다. 신채호 등의 창조파는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 정부 대신에 새로운 임시 정부를 만주나 연해주에 설립하자고 주장하였으며, 안창호 등의 개조파는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체제나 조직을 개편하여 계속 유지하자고 주장하였다.⁸⁾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결국 회의는 결렬되고 마지막까지 남았던 창조파는 신정부 구성을 결행하고 상하이를 떠나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였다.⁹⁾ 이들은 이곳에서 소련의 지원을 받아 활동을 강화하려 하였지만 결국 소련의 반대로 와해되어 버렸다. 사실상 국민 대표 회의가 결렬되자 1923년 6월 내무총장 김구는 창조파의 행위를 반역 행위로 규정하고 ‘내무령’과 ‘국무령포고’ 3호를 발표하여 창조파의 행위를 격렬하게 성토했다.

“소위 국민대표회의에서 6월 2일 연호 및 국호를 정한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모반이다. ……

본 내무총장은 2천만 민족이 공동 위탁한 치안의 책임과 4천년 유업의 신기를 보유할 직권으로서 소수인의 집회 등 6월 2일 이래 일체의 불법행위를 엄금하고 대표회 자체의 즉시 해산을 명한다.”¹⁰⁾

국민 대표 회의 이후 대다수의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떠나버리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더욱 침체에 빠졌다. 1925년 3월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되어 면직되고¹¹⁾ 박은식을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임하는 등 변화를 꾀하였지만 박은식도 곧 사망하면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더욱 어려워졌다.

8) 국사편찬위원회, 『신편한국사』 48, 140-144p

https://db.history.go.kr/download.do?levelId=nh_048_0030&fileName=nh_048_0030.pdf#page=2

9) 국사편찬위원회, 『신편한국사』 48, 160p

10) 김용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영원한 주석 김구』, 『월간 순국』(2024. 4.) (재인용)

11) 대한민국 임시 정부 인사들은 당시 이승만이 주장한 국제 연맹 위임통치안에 반발해 그가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직접 직책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함께 임시 의정원 결의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했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874238.html)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1925년 지도 체제를 변경하였다. 대통령제를 내각책임제인 국무령제로 바꾸었으며, 행정수반으로 이상룡, 안창호, 홍진 등을 국무령으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안창호가 취임을 사양하고 홍진이 사퇴하는 등 위기가 지속되었다.¹²⁾ 김구는 1926년에는 당시 임시의정원장이었던 이동녕의 추천으로 국무령에 취임하였다. 행정수반이 된 그에게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나아갈 바를 정하고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그는 침체에 빠진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부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1927년 헌법을 개정하여 국무령제를 집단 지도 체제인 국무위원제로 바꾸었다. 또한 그는 의열 투쟁을 전개할 목적으로 1931년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였다.

1931년의 상황은 우리에게 매우 불리하였다. 일제는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를 침략하고 이어 꼭두각시 국가인 만주국을 수립하였다(1932). 또한 만보산 사건¹³⁾으로 인하여 한국인에 대한 중국인의 감정이 악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인 애국단 소속의 이봉창은 1932년 1월 일본 도쿄에서 일왕이 탄 마차 행렬에 폭탄을 투척하였다(이봉창 의거). 이 의거는 비록 실패하였지만 일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이를 보도한 중국 신문의 내용¹⁴⁾을 빌미로 일제는 상하이로 기습 공격하여 점령하였다(상하이 사변). 1932년 4월 일제는 상하이 사변 승리와 일왕 생일 기념식을 상하이의 홍커우 공원(虹口公園)에서 열었다. 이에 한인 애국단 소속의 윤봉길은 단상에 폭탄을 던져 많은 일본군 장성과 고관을 살상하였다. 이 두 의거는 많은 국내외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중국 국민당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인정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만보산 사건 등으로 인한 중국인의 반한 감정을 무마하는 데 크게 작용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대한민국 임시 정부와 김구는 은거하면서 도피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상하이를 떠나 항저우 → 전강(1935) → 창사(1937) → 광저우(1938) → 류저우 → 구이양(1939)을 거쳐 1940년에는 충칭에 정착하였다. 김구는 윤봉길 의거 직후 미국인 피치(G. A. Fitch) 목사의 집에 은거하다가 작은 마을인 가흥(嘉興)을 거쳐 임시 정부와 함께 피난 생활을 이어갔다. 이 시기 의열단 계열이 주도하는

12) 김용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영원한 주석' 김구」, 『월간 순국』(2024. 4.)

13) 1931년 중국 지린 만보산 지역에서 한국과 중국 농민이 충돌한 사건이다. 일제는 이를 이용하여 한국 내에서 중국인에 대한 반감을 높였다. 이는 거꾸로 중국 내에서 중국인들이 한인들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었다.

14) 중국의 신문사인 『민국일보』는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봉창이라는 한인이 일본의 황제를 저격하였으나 불행히도 맞지 않았다(不幸不中)”라고 적었다.

민족 혁명당이 민족 운동을 주도하려 하자 김구는 임시 정부 고수 세력과 민족 혁명당에 참여하지 않는 세력을 끌어모아 한국 국민당을 조직하였다. 임시 정부는 1937년 중일 전쟁을 계기로 창사로 이동하였으며, 김구는 1938년 일제의 사주를 받은 이운환에게 피격을 당하여 중상을 입었으나 기적적으로 생명을 구하기도 하였다.

중일 전쟁 이후 김구는 독립운동의 역량을 끌어모으고자 자신이 이끄는 한국 국민당, 조소앙이 이끄는 한국 독립당, 지청천이 이끄는 조선 혁명당을 모아 한국 광복 운동 단체 연합회를 결성하였다. 이후 3당을 합당하여 한국 독립당을 결성하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집권당 역할을 하게 하였다(위원장 김구). 1940년 총칭에 정착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김구를 주석으로 하는 단일 지도 체제를 마련하였다. 1941년 11월에는 조소앙의 삼균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발표하였으며, 동년 12월에는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자 대일 선전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1940년 9월 김구가 이끄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정규군인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하고 이범석을 참모장으로 하였다. 1942년에는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 의용대의 일부가 합류하면서 군사적인 측면에서 좌우 합작을 이루는 등 전력이 크게 강화되었다. 이들은 대일전에 참전하여 일본군 포로 심문, 회우 방송 등 심리전을 펼쳤으며, 미얀마·인도 전선에서 영국군과 함께 공동 작전을 펼치기도 하였다. 또한 미국과 협약을 맺어 국내 진공 작전(독수리 작전)을 계획하였다.¹⁵⁾

김구는 카이로 회담의 정보를 입수하고 장제스가 카이로 회담에 참석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김구는 외무부장 조소앙, 선전부장 김규식, 한국광복군 총사령 지청천 등과 함께 1943년 7월 장제스를 만나 한국의 독립을 위해 힘써 달라고 요구하여 장제스로부터 ‘힘써 싸우겠다’(力爭)는 약속을 받아냈다.¹⁶⁾

김구가 이끄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일제의 침략이 더욱 확대되는 가운데 1944년 4월 헌법을 개정하여 단일 주석제 지도 체제를 주석·부주석 지도 체제로 개편하였다. 그

15) 일제가 예상 밖으로 일찍 항복하면서 국내 진공 작전은 취소되었다.

16) 김용달,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영원한 주석 김구」, 『월간 순국』(2024. 4.)

1943년 11월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연합국의 수뇌들인 미국의 루스벨트, 영국의 처칠, 그리고 중국의 장제스가 모여 대일전에서의 협력과 일본의 영토 문제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보장하는 결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협의문에 들어간 ‘적절한 절차(혹은 과정)를 거쳐서’라는 표현은 이후 신탁 통치 문제로 이어지면서 논란이 되었다.

리하여 김구가 주석, 김규식이 부주석에 취임하였다. 좌우의 민족 세력을 통합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광복을 준비하며, 1945년 8월 18일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하였으나 그보다 빠른 8월 15일에 일제가 항복을 선언하면서 국내 진공 작전을 펼칠 수 없었다.

왜적이 항복한다 하였다. 이것은 내게 기쁜 소식이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었다. 천신만고 끝에 수년 동안 애를 써서 참전할 준비를 한 것이 다 허사이다. 시안과 푸양에서 훈련을 받은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비밀 무기를 주어 산둥에서 미국 잠수함에 태워 본국으로 들여보내서 국내의 중요한 곳을 파괴하거나 점령한 뒤에 미국 비행기로 무기를 운반할 계획까지도 미국 육군성과 다 약속이 되었던 것을 한번 해 보지도 못하고 왜적이 항복하였으니…….

-『백범일지』-

광복 후 김구는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였다. 미군정이 다른 통치 주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그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주석 자격으로 귀국이 허락되지 않았다. 광복 직후 미군정의 통치가 진행되면서 국내외의 민족 지도자들이 국내에서 각자의 정치 세력을 규합하여 정당을 만들어 정치 행보를 이어갔으며, 김구도 한국 독립당을 창당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키워갔지만 미군정의 입장,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에 따른 신탁 통치 문제 혹은 모스크바 3상 결정 사항 준수 여부 등으로 국내 정치는 1945년 12월 이후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날로 격화되어 갔다. 우익은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펼쳤으며, 좌익은 처음에는 반탁을 주장하다가 곧이어 모스크바 3상 결정 지지로 방향을 바꾸었다. 우익이었던 김구는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한편,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에 따라 1946년과 1947년 덕수궁에서 미소 공동 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이들은 한국의 민주주의 임시 정부 수립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정부 수립에 참여할 단체의 범위를 두고 대립하였다. 1946년 5월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되면서 이승만의 정읍 발언 등으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여운형과 김규식 등의 중도 세력은 좌우 합작 위원회를 결성하였다(1946.7.). 이들은 미군정의 지원을 받으며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는 등 통일 정부 수립 운동을 펼쳤다. 하지만 여기에 박헌영 등의 좌파나 김구와 이승만 등의 우파는

참여하지 않았다. 국제적으로 냉전이 본격화하고, 미군정이 좌우 합작 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는 등 이들의 입지는 점차 약화되었다. 1947년 7월 여운형이 혜화동 로터리에서 암살되면서 좌우 합작 위원회는 사실상 힘을 상실하고 말았다.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되고 미국은 한반도의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였다. 유엔은 1947년 인구 비례에 의한 유엔 감시하의 전국 총선거를 결정하였고, 소련 군정이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입경을 거절하면서 유엔 소총회는 1948년 2월 선거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우선 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 무렵 김구는 「삼천만 동포에 읍고함」을 통하여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일을 위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에 협력하지 않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발표하였다. 이어 1948년 2월에 김구는 북한의 지도부에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 정치 회담을 제의하였다. 4월에 김구와 김규식 등의 지도자들은 평양에서 북한의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 협상을 가졌다. 협상에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 반대, 통일적 민주 정부 수립 등의 원칙을 발표하였으나 미국과 소련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마침내 1948년 5월 10일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적인 총선거가 실시되어 제헌 국회의원 선거가 되었다. 단정 수립에 반대하여 김구는 5·10 총선거에 불참하였다. 김구는 1949년 6월 26일 자택인 경교장에서 서재에서 붓글씨를 쓰던 중 육군 장교 안두희에 의해 총격을 받고 사망하였다.¹⁷⁾

김구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광복 이후의 삶에 대하여는 호불호에 따라 사람마다 평가가 달라 조심스럽다. 특히 이승만과의 관계 속에서 평가가 달라진다. 다만 그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으며, 광복 이후에는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1948년 8월 정부 수립 이후에도 그는 통일된 임시 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측면도 있다. 1948년 9월 김구는 한국 독립당의 주석 명의로 유엔에 메시지를 제출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17) 백범 김구 암살에 대하여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아직 정확한 역사적 결정은 없는 상황이다. 정병준(목포대)은 2001년 안두희가 미군방첩대(CIC)의 요원이자 극우 테러단체 백의사의 단원이었다는 문서를 발굴했다. 이를 계기로 미국 배후설이 제기되었다(정병준, 「미국 자료를 통해 본 백범 김구 암살의 배경과 미국의 평가」).

- ① 진정한 한인 대표에게 유엔 총회에서 발언 기회를 부여할 것
- ② 미소 양군이 즉시 철퇴하고 그 진공 기간의 혼란을 방지하기 이해여 유엔에서 치안의 책임을 질 것
- ③ 남북 지도자 회의를 소집하여 남북을 통한 통일적 임시 정부 수립 방안을 작성하고,
- ④ 유엔 감시 하에 절대 자유 분위기를 조성하여,
- ⑤ 남북에서 새로운 총선거를 실시할 것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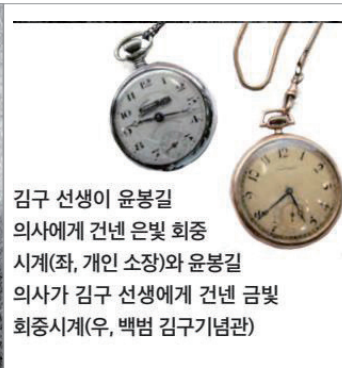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을 위하여, 광복 이후는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한 김구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일제는 만주 사변(1931)과 같은 대륙 침략을 통해 대공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구는 내부 분열 등으로 위축되었던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비밀 결사인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여 의열 투쟁을 전개하였다.

〈금성출판, 189p〉



김구(좌)와 윤봉길(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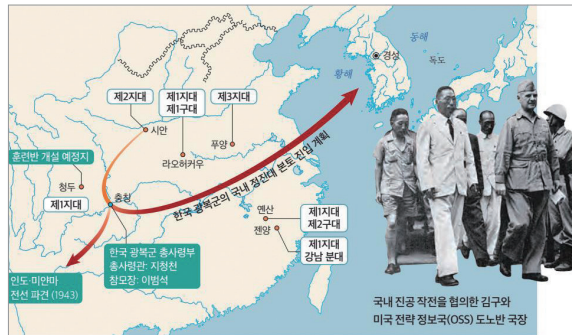


김구 선생이 윤봉길 의사에게 건넨 은빛 회중시계(좌, 개인 소장)와 윤봉길 의사가 김구 선생에게 건넨 금빛 회중시계(우, 백범 김구기념관)

〈금성출판, 189p〉

충칭에 자리 잡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조직을 어떻게 정비하였을까? 김구, 조소앙, 지청천 등의 민족주의 계열은 임시 정부를 이끌어 갈 한국 독립당을 창당하였고, 헌법을 개정해 김구 중심의 지도 체제를 확립하였다. 또한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지청천을 사령관으로 하는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였다(1940).

〈금성출판, 229p〉



국내 진공 작전을 협의한 김구와 미국 전략 정보국(OSS) 도노반 국장

〈금성출판, 229p〉

18) 도진순, 「1948~1949년 김구 평화통일론의 내면과 외연」, 재인용(『자유신문』, 1948.9.30.)

의열단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을 무렵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연통제와 교통국이 일제에 발각되어 와해되었고, 국민 대표 회의의 결렬, 이승만 대통령 탄핵, 조직 개편이 이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게다가 만주 사변으로 독립군의 사기가 떨어지고, 만보산 사건 등으로 한국인에 대한 중국인의 감정이 악화되었다. 이에 김구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침체를 극복하고, 독립운동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1931년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였다.

〈동아출판, 166p〉

민족 혁명당은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 대부분을 합친 중국 관내 최대 규모의 민족 통일 전선 정당이었다. 하지만 김구 등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약화를 우려하여 참여하지 않았고, 의열단 계열이 주도권을 잡자 지청천, 조소앙 등 민족주의 세력의 일부도 이탈하였다.

〈동아출판, 201p〉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일을 위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

-김구, '삼천만 동포에 읊고함', 1948. 2.-

〈동아출판, 220p〉

분단의 가능성이 높아지자, 1948년 2월 김구, 김규식은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김일성 등 북한 지도부에 남북 정치 요인 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그해 4월 김구와 김규식은 38도선을 넘어 평양에서 북한 지도부와 남북 협상을 가졌다.

〈동아출판, 221p〉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국민 대표 회의의 결렬, 일제의 탄압, 자금난 등으로 활동하는 데 위기를 맞았다. 더욱이 만보산 사건으로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가 냉각되어 중국에서의 독립운동이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구는 일제의 주요 인물을 처단하는 의열 투쟁을 통해 임시 정부의 활기를 되찾고자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였다(1931).

〈지학사, 218p〉



지청천과 김구 〈지학사, 215p〉



↑ 대한민국 임시 정부 제34회 임시 의정원의 인사들(1942)

제34회 임시 의정원은 한국 독립당, 민족 혁명당 등 각 정당 단체의 인사들을 총망라한 좌우 합작 통일 전선 정부로 구성되었다.

〈지학사, 219p〉

대한민국 임시 정부 요인과 장제스의 담화 기록

[시간] 1943년 7월 26일 오전 9시

[참석자]

• 대한민국 임시 정부 측: 김구, 조소앙, 김규식, 지청천, 김원봉

• 중국 측: 장제스, 우티에칭

장제스: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실현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혁명 동지들이 진심으로 단결하고 협조하여 함께 노력한다면 조국 광복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김구·조소앙: 우리의 독립 주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국이 지지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 국사 편찬 위원회, 『대한민국 임시 정부 자료집』

〈지학사, 222p〉

학습 목표 통일 정부를 세우기 위한 우리 민족의 노력을 파악한다.

지금 나의 유일한 염원은 삼천만 동포와 손을 잡고 통일된 조국의 달성을 위하여 공동 분투하는 것뿐이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 언정, 일신에 구차한 안일을 위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 김구, 「삼천만 동포에게 눈물로 고향」

② 김구 일행이 38도선을 넘어 남북 협상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일까?



↑ 남북 협상을 위해 38도선을 넘는 김구 일행

〈지학사, 23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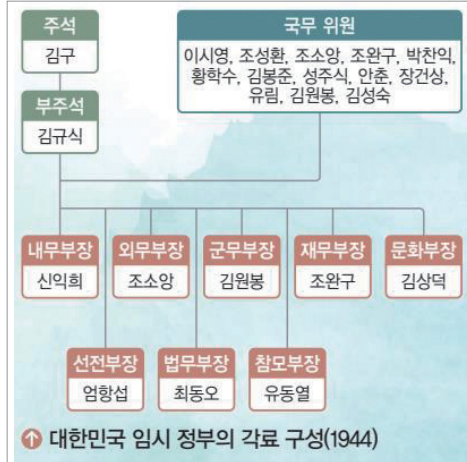
1940년 9월, 중국 국민당을 따라 충칭에 자리 잡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또한 이전의 집단 지도 체제에서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석 중심의 단일 지도 체제를 마련하고 김구를 주석으로 선출하였다. 이로써 정당(한국 독립당), 정부(임시 정부), 군대(한국 광복군)의 체제가 정비되고 인적 기반이 확대되면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위상과 역할은 커졌다.

〈비상교육, 223p〉



① 대한민국 임시 정부 제34회 임시 의정원(1942)

〈비상교육, 223p〉



〈비상교육, 223p〉

국외 민족 운동 세력이 돌아오다

광복과 함께 국외에서 활동하던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귀국하였다. 그중 김일성과 항일 유격대 세력이 소련의 도움을 받으며 원산을 통해 가장 먼저 귀국하였다. 그리고 중국 옌안에서 활동하던 김두봉 등 조선 독립 동맹의 지도부도 신의주를 거쳐 평양으로 귀국하였다.

미국에서 활동하던 이승만과 중국 충칭에서 활동하던 김구 등의 임시 정부 요인은 서울로 돌아왔다. 그러나 미국이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인정하지 않아 임시 정부의 요인들은 개인 자격으로 귀국해야만 하였다.

▶ 사료 읽기 김구의 귀국 성명

나는 지난 5일 중경을 떠나 상해로 와서 22일까지 머물다가 23일 상해를 떠나 당일 서울에 도착하였습니다. 나와 각원 일동은 한갓 평민의 자격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과 같이 우리의 독립 완성을 위하여 진력하겠습니다.

— 『자유신문』(1945. 11. 26.)

도움 글 | 1945년 11월 23일 제1차으로 귀국한 다음날 김구가 경성 방송국에서 발언한 내용의 일부이다.

③ 김구가 '평민(개인)'의 자격으로 입국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씨마스, 244p〉



▲ 귀국 다음 날 이승만과 함께 하지 미군정 장관을 방문한 김구(1945. 11. 24.)

〈씨마스, 244p〉

국의 민족 운동 세력은 귀국 후 각각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만들려 하였다. 38도선 이남 지역에서는 한국 민주당을 비롯한 우익 세력이 미군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이승만은 여러 정당과 단체의 연합체로 독립 촉진 중앙 협의회를 결성을 주도하였다. 김구의 임시 정부도 국무 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내 정치 세력의 통일을 모색하였다. 박헌영을 비롯한 사회주의 세력은 조선 공산당을 재건하였다.

〈씨마스, 244p〉

윤봉길의 거사 이후 일본의 탄압과 간섭이 심해지자,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1932년에 상하이를 떠나 항저우로 근거지를 옮겼다. 김구 등은 1935년 항저우에서 한국 국민당을 조직하고 임시 정부를 재정비하였다.

조선 민족 혁명당을 이탈한 조소앙의 한국 독립당, 지청천의 조선 혁명당 등은 김구의 한국 국민당과 더불어 한국 광복 운동 단체 연합회를 결성하였다(1937). 1940년에는 한국 광복 운동 단체 연합에 참가한 3당이 합당하여 김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한국 독립당을 결성하였다. 한국 독립당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통해 항일 운동을 주도하였다.

1940년 충칭에 자리 잡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중국 국민당 정부와 교섭하여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이어 김구를 주석으로 하는 단일 지도 체제를 만들었다

〈천재교육, 227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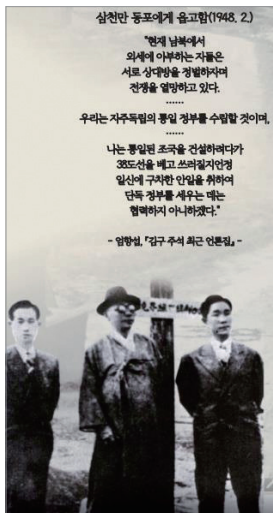


한국광복군 창설 기념 사진 〈천재교육, 227p〉



≡ 대한민국 임시 정부 개선 환영 대회(1945. 12. 19.)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미국과의 귀국 교섭 과정에서 정부로서 승인받지 못하였다. 이에 김구를 비롯한 임시 정부 요인들은 개인 자격으로 입국하였다.

〈천재교육, 239p〉



〈천재교육, 244p〉

남한 단독 선거가 결정되자 분단을 막으려는 움직임도 본격화되었다. 김구와 김규식 등은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 협상을 추진하였다. 북한이 이에 호응하자, 김구와 김규식 등은 남북 협상을 위해 평양에 갔다. 1948년 4월 남북의 주요 지도자들과 정당·사회단체 대표자들이 회의를 개최한 결과, 외국 군대의 즉시 철수와 남북 총선거 등 통일 정부 수립 등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천재교육, 244p〉



● 좌우 합작을 이룬 제34차 임시 의정원 기념사진(1942) 앞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가 김구, 맨 오른쪽이 김원봉이다.

〈미래엔, 220p〉

국내 진공 작전 계획 *

왜적이 항복한다 하였다. 아! 왜적이 항복! 이것은 내게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었다. 천신만고 끝에 수년 동안 애를 써서 참전할 준비를 한 것도 다 허사이다. 시안과 푸양에서 훈련을 받은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비밀 무기를 주어 산둥에서 미국 잠수함에 태워 본국으로 들여보내어 국내의 중요한 곳을 파괴하거나 점령한 뒤에, 미국 비행기로 무기를 운반할 계획까지도 미국 육군부와 다 약속이 되었던 것을 한 번 해 보지도 못하고 왜적이 항복하였으니…….

— 김구, 『백범일지』 —

①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김구 주석이 위와 같이 한탄한 까닭은 무엇일까?

〈미래엔, 221p〉

이에 대해 김구, 이승만 등 우익 진영은 신탁 통치가 한국인의 자주권을 부정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대대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처음에는 반대하던 좌익 진영은 신탁 통치를 독립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받아들여 모스크바 3국 외무 장관 회의의 결정을 지지하였다.

〈미래엔, 235p〉

그러나 ‘좌우 합작 7원칙’을 실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김구는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지만 이승만은 모호한 태도를 보였고, 한국 민주당 등 우익은 친일 반민족 행위 처벌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였다. 좌익도 무상 몰수·무상 분배의 토지 개혁과 친일파 즉각 청산을 요구하며 반대하였다.

〈미래엔, 237p〉

김구는 침체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활기를 불어넣고 독립운동의 활로를 열고자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였다(1931).

〈리베르스쿨, 179p〉

자료 ④ 김구의 한인 애국단 결성

임시 정부에는 돈도 사람도 들어오지 아니하여 대통령 이승만이 물러나고 박은석이 대신 대통령이 되었으나, 대통령제를 국무령제로 고쳐만 놓고 나가고, …… 이리하여 한참 동안 무정부 상태에 빠져서 의정원에서 큰 문제가 되었다. …… 당시 정세로 말하자면, 우리 민족의 독립사상을 펼치기로 보나 만보산 사건, 만주 사변 같은 것으로 우리 한인에 대해 심히 악화된 중국인의 악감정을 풀기로 보나 무슨 새로운 국면을 타개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 임시 정부에서 회의한 결과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여 암살과 파괴 공작을 하되, 돈이나 사람이나 내가 전담하고, 다만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위임을 받았다.

— 김구, 『백범일지』 —

〈리베르스쿨, 179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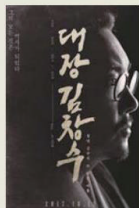
〈리베르스쿨, 179p〉



인물 특독

전보 한 장에 목숨을 건진 청년

[역사 정보 활용 및 의사소통]



○ 김구의 수감 생활을 다룬 영화

1896년, 황해도 치하포의 한 주막에서 조선인이 일본인을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일본인을 살해한 사람은 21세의 김창수. 을미사변으로 격분해 있던 김창수는 조선인으로 위장한 일본 상인 쓰치다를 명성 황후를 시해한 일본군 장교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국모의 복수를 하겠다며 살해한 것이다.

3개월 후 체포된 김창수는 사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사연을 들은 고종이 집행을 보류했기 때문에 극적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백범일지』에는 고종이 전화로 집행 보류를 지시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서울-인천 간 전화가 설치되기 전이었으므로 실제로는 전신이 이용되었을 것이다.

목숨을 건진 김창수는 옥중에서 개화사상을 공부하였다. 또한 옥중 학교를 열어 문맹자가 대부분인 죄수들을 가르쳤으며, 이 사실이 『독립신문』을 통해 알려져 유명세를 타기도 하였다. 1898년 김창수는 탈옥하여 국권 회복 운동과 독립운동에 투신하였고, 이름도 김구로 고쳤다.

〈해냄예두, 145p〉

선거계의 신기원

이번 열린 임시 의정원의 결원 의원을 보선거 위하여 황해도 선거회에서 지난 14일 보결 선거를 행한 결과 김구 씨와 김마리아 여사가 의원에 당선되었는데, 여자로서 의원에 선거됨이 우리 선거계에는 물론 이번이 처음일뿐더러 금일까지의 세계 열국을 통해서도 이것이 아직 몇째 안 가는 희귀한 일이다. - 『독립신문』, 1922. 2. 20.

〈해냄예두, 175p〉

한편, 국민 대표 회의 이후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침체되고, 완바오산 사건 이후 중국과의 관계도 어려워졌다. 김구는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1931년 상하이에서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였다.

〈해냄예두, 180p〉

1945년 4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김구는 장건상을 연안으로 파견하여 조선 독립 동맹과의 연합을 추진하였다. 이에 앞서 1944년 12월 조선 독립 동맹과 조선 건국 동맹은 베이징에 대표를 파견하여 서로의 강령과 이념을 조율하고 연합을 이루었다. 다만 조선 건국 동맹이 임시 정부에 파견한 대표는 접선에 실패하였고, 임시 정부는 건국 동맹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 문제는 시간이었다. 세 단체가 함께 만나 독립운동 단체의 통합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였다.

〈해냄예두, 223p〉

좌우 합작 위원회는 ‘통일 임시 정부 수립, 토지 개혁, 친일파 처리’ 등에 합의하였다. 광복 이후 극심한 대립과 갈등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양측이 합의를 끌어낸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위원회에는 김구, 이승만, 박헌영 같은 좌우의 주요 인물이 참여하지 않았다.

〈해냄예두, 239p〉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을 만나는 김구

1948년 3월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 대표(앞줄 맨 왼쪽)가 김구(앞줄 가운데)를 방문해 ‘남한 단독 선거안’을 설명하였다.

〈해냄예두, 239p〉

백범 김구에 대하여 9종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모두 싣고 있다. 일부 교과서는 치하포 사건부터 기록하고 있으며, 모든 교과서가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의 활동을 비교적 상세히 다루고 있으며, 1931년 한인 애국단의 결성과 활동, 1940년 한국 독립당의 결성과 한국광복군의 창설 및 건국 준비를 다루고 있다. 또한 광복 이후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하여 매진한 김구의 활동을 다루고 있다. 반탁 운동, 남북 협상, 그리고 5·10 총선거 불참 등을 다루고 있다. 또한 『백범일지』의 내용을 게재하여 백범 김구의 독립을 향한 노력과 통일 정부 수립 열망을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그를 언급하고 있는 쪽수가 많다. 그만큼 활동이 많고 다양하며, 우리의 독립과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국 현대사에서 이처럼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인물은 드물 터이다.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 소원’이었던 김구는 분단된 광복을 맞이하고 말았다. 그래서 그는 광복 이후에는 통일된 정부 수립을 원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실천해야 할 것인가? 일제강점기의 다양한 삶의 군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도리인가를 몸소 보여주고 실천하였던 김구의 삶은 얹히고설킨 현대사 속에서 더욱 강렬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현재는 과거의 결과이고, 현재는 미래를 여는 단서가 된다고 한다.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오늘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내야 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통해 지혜를 얻어야 하지 않을까. 

참고 문헌

- 국사편찬위원회. 신편 한국사 48(『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https://db.history.go.kr/diachronic/level.do?levelId=nh_048)
- 국사편찬위원회. 신편 한국사 50(『전시체제와 민족운동』)
(https://db.history.go.kr/diachronic/level.do?levelId=nh_050)
- 김구. 『백범일지』(도진순 주해), 돌베개, 2005
- 김삼웅. 『백범 김구 평전』, 시대의창, 2019
- 김용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영원한 주석' 김구」(『월간 순국』 2024년 4월)
- 배경한. 「김구, 장제스(蔣介石)와 카이로 회담」(『월간 순국』 2023년 12월)

- 교과서(김구 관련 서술 내용, 2025년 고등학교 2·3학년 사용 한국사 교과서)
 - 최준채 외(2024).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189p, 229p, 231p, 241~242p, 246p, 248p, 금성출판
 - 노대환 외(2024).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166p, 201~202p, 209p, 217p, 218p, 220~221p, 226p, 동아출판
 - 송호정 외(2024).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215p, 218~219p, 222p, 232~238p, 지학사
 - 도면희 외(2024).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219~220p, 223p, 236p, 238~239p, 241p, 243p, 비상교육
 - 신주백 외(2024).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226~228p, 233p, 244~247p, 251p, 씨마스
 - 최병택 외(2024).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186p, 191p, 226~227p, 231p, 239p, 241p, 244p, 247p, 천재교육
 - 한철호 외(2024).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1752p, 218~221p, 235p, 238p, 240p, 미래엔
 - 이익주 외(2024).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173p, 177p, 179p, 210~212p, 221p, 223p, 228~229p, 232p, 리베르스쿨
 - 박중현 외(2024).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145p, 175p, 180p, 220p, 223p, 234p, 237~239p, 242p, 해냄에듀

필자 소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졸업하고 한국교원대 대학원을 수료하였다. 서울 골목길 인문학과 융합 수업에 관심이 많으며, 학생들의 생각을 길러주기 위한 수업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였다.